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통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 4개 추가 선정 -
- 고위험 분만·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

【관련 국정과제】 84-4.진료권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인프라 확충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 충남, 제주에 4개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 강화, 건강보험 보상 확대 및 의료사고 부담완화 등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전북의 고위험 진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과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5.4.~, 12개 협력체계 운영 중).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선별하여 위험도에 따라 적정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상황에는 환자정보 공유 및 긴급 연락망(핫라인) 가동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는 협력체계가 없는 충청권(충북·충남), 전북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실시하여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선정하였다. 전북권의 경우 최근 고위험 진료 대응에 일부 제한이 발생하여, 향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체계 추가 지정은 지난 5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 마련(5.26. 국무회의 보고) 이후 본격 추진한 것으로, 권역 내 기관들 간 협력을 통해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각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분담 및 핫라인 구축, 기관 간 협의를 통한 고위험 환자 진료협력 프로토콜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 말경 협력체계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6일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①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구축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를 고도화한다.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이 개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시간대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보다 신속하게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소방청,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이송체계도 7월 중 정비할 예정이다.

②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 및 모자의료센터 건강보험 보상 강화

*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발표(26.6.25.)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치료를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산모 중증도, 신생아 상태(주수, 체중 등),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 수가를 신설하여,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 가산을 신설하고, 임신·분만 수가(200여 개 행위) 20% 상향 및 고위험분만에 대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의 100~200% 가산을 적용하는 등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수가가 개선된다.

③ 의료사고 부담완화

의료진이 안심하고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을 올해 6월부터 산과,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하였으며, 지원액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까지로 상향하였다.

한편, 최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전담해 오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누적된 업무과중으로 사직의사를 표해, 전북 지역의 고위험 진료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북대병원은 원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를 통해 최대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생아 전문의 구인, 사직 예정인 신생아 전문의와 소통 등 전북의 고위험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도 응급·고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 내 분만기관 연계 강화와 함께 인근 지역 및 전국단위* 연계·협력 강화도 추진하여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임신부·신생아 전원전담팀 통해 신속한 병원 선정 추진

앞으로도 정부는 모자의료센터 확충 및 재편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전국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아기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전하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생명 탄생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권역별 모자의료 협력체계 선정 결과
2.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이정신 (044-202-2535)
<진료협력 시범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책임자	주무관	양지인 (044-202-2538)
		담당자	부 장	김희남 (033-739-1760)
			부연구위원	오동관 (033-739-1762)



붙임 1

권역별 모자의료 협력체계 선정 결과

구분	모자의료권역	대표기관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수	중증 치료기관	지역 분만기관
1	충북 세종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9	1 충북대학교병원	7 모태안여성병원 다나여성병원 미래산부인과의원 하안유산부인과의원 프라우삼성산부인과의원 충주별산부인과의원 서산부인과의원
2	충남 I	단국대학교의과 대학부속병원	10	1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8 혜성산부인과병원 양즈로여성병원 삼성미즈병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퀸스산부인과의원 연세하임산부인과의원 엠산부인과의원 미즈맘 의원
3	충남 II	충남대학교병원	9	1 건양대학교병원	7 더블유여성병원 라운산부인과의원 모태산부인과의원 미즈여성병원 가오플러스산부인과의원 미즈제일여성병원 모아산부인과의원
4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5	- -	4 서귀포의료원 예나산부인과의원 맘편한산부인과의원 드림포레산부인과의원

□ **추진현황**

-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 운영중('25.4.~)
 - 대표기관 12개소, 중증치료기관 33개소, 분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18개소 등 총 172개 기관 참여

<권역별 협력체계 현황>

연번	권역	대표기관	연번	권역	대표기관
1	서울권(동북)	고대안암병원	7	경북권	계명대동산병원
2	서울권(서남)	고대구로병원	8		칠곡경북대병원
3	경기권(북부)	건보공단일산병원	9	경남권	부산백병원
4	경기권(남부)	아주대병원	10		해운대백병원
5		분당서울대병원	11	강원권	강원대병원
6	인천권	길병원	12	전남권	전남대병원

□ **주요 내용**

- (내용) 고위험 임신부·신생아 중증도별 집중치료 및 24시간 응급 대응이 가능한 권역 최상위 의료기관과 일반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 (구성) 권역별 대표기관 1개+지역 분만기관·NICU 운영기관 10개 내외

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0개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고위험 분만 및 NICU 운영 • 중증·응급 상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산전 관리, 분만, 산후관리 실시 • 응급·고위험 분만 초기 상담, 필요시 상급기관 연계

- **목표 서비스**
 - (상시: 고위험 임신부 진료협력) 각 의료기관에서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중증도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진료 위한 연계·협력(회송, 전원 등) 실시
 - (응급: 응급·고위험 분만) 응급·고위험 분만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 진료·이송체계 구축·운영
- (보상 방안) 진료협력체계 운영에 대한 ▲사전 보상과 ▲사후 성과 보상 및 ▲진료협력 수가 지원

협력체계 운영 보상		진료협력 수가	
사전보상 (총 운영비용의 70%)	사후보상 (성과에 따라 20~40%)	입원 정책수가 (대표기관)	100,000원 (입원일당, 최대 7일)
		의뢰환자 입원관리료 (대표기관 중증치료기관)	258,060원 (1회 산정)
		평가관리료 I (지역 분만기관)	66,100원 (최대 3회)
		평가관리료 II (대표기관 중증치료기관)	94,430원 (최대 3회)